論 壇

우리나라 大學 圖書館의 協同體制

韓 相 完
(全南大 文獻情報學科)

대학 도서관 정보 네트웍은 두 개 이상의 도서관들이 기능상 상호 의존한다는 목적하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을 통하여 정해진 조직 속에서 정보 자료의 교환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학인들이 정보 자료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으로 편리하게 하여 연구와 교육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1. 머리말

요즈음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계에는 변혁의 바람이 일고 있다. 이 바람의 갈래는 24년만에 도서관법이 개정되고 그 시행령이 곧 공포될 것이라는 법적 차원의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한 줄기는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대학 도서관 개혁을 요구하는 거센 바람이 그것이다.

개정된 도서관법은 개정이라기보다 이전의 것을 폐기하고 새로 제정한 것과 같은 매우 발전적이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선진 제국의 이 분야 관계 법령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직도 미흡한 면을 갖고 있기는 하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 의식을 감안해 보았을 때 이에 상당히 부응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도서관은 새 법령에 의거하여 전향적 자세와 함께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변혁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몇몇 국립대학에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매우 거센 대학 도서관 개혁 운동은 학내·외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향식 도서관 개혁 운동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된다. 대학교육과 학문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대학 도서관의 質과 量 면에서 본 실상은 우려할 만큼 수준 이하라는 것이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에서 조사·발표하고 주장한 내용들이었다. 도서관의 이용자 측에서 자발적으로 그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라고 요구하는 소위 학사 개혁의 차원에서 제기된 대학 도서관 개혁의 목소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 의욕적 연구 보고서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하였다(崔云賀·崔昌燮, 1987, p.84).

① 주제 전문 사서(subject specialist) 미확보
② 특정 자료(신간 자료, 희귀 자료 및 분야별 특수 전문 자료 등) 확보 부진
③ 대학 당국 및 교수진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 부족
④ 도서관 직제·기구·조직 운영상의 비합리·비효율성
⑤ 도서관 내곽 시설의 전문적 분리·배치의 불합리
⑥ 각종 도서관간 상호 교류, 연계 체제 미흡

이와 같은 사항을 지적한 후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의 하나로서 제일 시급한 것으로 국내·외 대학 도서관간 상호 대차 제도 혹은 협동 체제를 구축하며 분야별로 균형 있는 주제 전문 사서를 확보하여야 하고, 최근 자료의 신속한 수집과 필요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최운실·최창섭, 1987, p.86)고 하였다.

다시 부연하거니와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은 대학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들 대학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문적인 정보 자료 센터로서의 기능 수행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대학의 교수·학습·연구 활동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대학교육의 중심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한계를 오늘의 대학 도서관들이 노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라도 대학 도서관 이용자가 한 대학의 정보 자료의 이용이라는 한계를 넘어 자원의 공동 이용(resource sharing)이라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국내·외 여러 대학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협동의 체제는 과연 바랄 수 없는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대학 도서관 협동 체제의 개념과 필요성을 살펴 본 후 우리나라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의 발전 방향도 동시에 모색해 보려 한다.

2. 大學 圖書館 協同體制의 必要性 및 實態

1) 왜 협동 체제가 필요한가

최근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서관들은 독자적인 自足이란 목표에 연연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대학 도서관의 자족이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 자료가 당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어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즉 물리적인 자족을 말하며, 다른 하나는 書誌的 자족으로서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에 대한 서지적(bibliographic) 식별 및 所在를 제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서지적 자족은 어느 한 도서관의 독자적인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물리적이든 서지적이든 도서관의 자족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 물리적 자족을 위한 한계는 재정적 한계, 쏟아져 나오는 정보 자료들에 대한 서지적 접근이 불완전하고 도서관의 공간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시간이 흐르면 증가되는 장서의 양과 이용자를 위한 공간은 계속 확장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언제나 적절히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자료의 선택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폐기 처분이 적시에 행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제 배경을 가진 전문가나 주제 전문 사서가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서지적 자족이라는 것도 한 도서관이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란 물리적 자족에서 직면하는 관계와 유사하게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서 전통적 도서관 협동인 圖書館 相互貸借, 종합 목록 작성, 분류 편목의 중앙화, 서지 정보의 제공 등 소극적 차원에서의 자원의 공동 이용과 적극적 도서관 협력 체제인 도서관 네트워의 구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도서관 혹은 정보 네트워(information network)은 두 개 이상의 도서관들이 기능상 상호 의존한다는 목적하에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수단을 통하여 정해진 조직 속에서 정보의 교환을 이루어 나가는 것으로서(Becker, 1978, p.88) 네트워의 목적은 회원 도서관 사이에 광범한 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정보 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두 개 이상의 도서관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기관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정보의 교환이란 공통된 목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서 각종 형태의 도서관이나 정보 센터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자료나 정보 봉사를 다른 잠정적인 이용자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도록 조직해 놓은 것이다. 비록 개개의 도서관은 각각 다른 관할 밑에 있지만 관할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s)가 다른 관할의 도서관에도 제공될 수 있도록 서로 협약하는 것이다. 또한 컴퓨터나 텔리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목적을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NCLIS, 1975, pp. 82~83). 결국 각 대학의 도서관들이 공통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 자료나 도서관 봉사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도서관 네트웍을 통하여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정보 서비스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공하거나, 같은 수준의 비용으로 보다 향상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李相榮, 1987, p. 10).

대학 도서관이 네트웍을 형성하여 이를 운용한다면 어떠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가? 1977년에 미국 피츠버그대학이 전국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Williams and Flynn, 1979, pp. 58~59)고 보고하고 있다.

① 도서관 상호 대차
②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s)
③ 자료의 배달
④ 수서 업무(acquisition)
⑤ 종합 목록(union catalogue)
⑥ 평생교육
⑦ 서지적 접근
⑧ 복사 업무
⑨ 대출 업무
⑩ 커뮤니케이션
⑪ 출판 업무
⑫ 분류·편목 업무
⑬ 업무 처리
⑭ 보관
⑮ 문헌 탐색
⑯ 장서 개발
⑰ 색인과 초록의 작성
⑱ 정보 자료 문의(referral)
⑲ 상담
⑳ 경영과 회계
㉑ 마이크로필름 제작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정보 자료가 선진 외국에 비하여 절대 빈곤한 상황을 상기한다면 위와 같은 대학 도서관의 이용 기능과 정보 서비스 기능을 확장해 주는 대학 도서관간의 네트웍 구성의 당위성은 더 이상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겠다.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한계성은 당해 대학 도서관의 자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2) 대학 도서관 협동 체제 실태

우리나라의 모든 도서관들은 대학 도서관을 포함하여 정보 자원의 공유라는 개념에 근거한 협동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상태라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물론 몇몇 경우 극히 제한적인 협력의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위 과학 연구 단지라고 일컫는 서울 홍릉 지역과 대덕 연구 단지의 과학 기술 및 경제 분야의 국책연구소 기술 정보실간의 소장 자료 종합 목록 출판이라든가, 신촌에 소재한 연세대·이화여대·서강대학 도서관이 축차간행물 종합 목록을 출판한 사례, 그리고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 도서관 협동이 그것이다. 이 중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에 속한 의과대학 도서관과 종합병원 도서관은 의학 관계 정기 간행물 종합 목록을 1964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62개 도서관이 참여한 제6판을 냈으며, 1988년 현재 7판을 발행했고, 회원 도서관 및 기관도 103 기관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외국과의 상호 대차도 WHO의 지원을 받아 소급 조사(retrospective sear-

ch), 최신 정보의 주지 조사(selected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search) 및 문헌 복사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이 우리가 예시할 수 있는 한국에서 도서관 협력이 이루어진 경우들이다. 이는 우리나라 도서관들이 제도적 측면에서나 지역적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고 적극적이며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도서관의 체제를 확립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시도로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 역점을 두고 제시된 3대 정책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도서관간의 협동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었다(崔云賞·崔昌燮, 1987, p.99). 이 연구 보고서는 정보 자료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체제화를 위해서는 수서 업무에서 자료 분류·편목 업무, 정보 서비스 및 대출 업무, 연속 간행물 통괄 업무, 도서관 행정 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도서관 전 업무의 기계화, 그리고 전산화된 정보 검색 시스템의 구축, 자체 보유 자료와 미보유 자료까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베이스의 제작과 온라인 네트웍(on-line network)의 구축 등 정보 서비스 기능의 전산화 체제(computerized system)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국가 대표 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저간의 연구와 부단히 노력한 학계의 건의 등을 바탕으로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폭적으로 반영하게 되었다. 동법 제7장 제41조 이하에 도서관 정보 협력망에 대하여 규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제41조 ①항에서는 정부는 정보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도서관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결 체제로서 전산화 정보 시스템을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서지 편찬·정보 처리·봉사 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 분담 수서·상호 대차·종합 목록·인쇄 카드 제도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 기타 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 자원의 국가적 공동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모든 도서관의 협동 체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주었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는 것이다.

대학 도서관은 이러한 법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반드시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물론 한꺼번에 도서관 정보 네트웍을 구성하여 이상적으로 운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러한 준비를 각 대학 도서관이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협동이 가능한 지역과 분야, 그리고 주제별로 협동의 폭과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최근 서울大는 종합 학술 정보망인 BITNET를 개통하여 도서관 협력망이란 개념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으나, 학술 연구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을 갖는 면과 이를 연내에 고려대·연세대·충남대 등 10~20개 대학·연구 기관과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음은 협동 체제의 구축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BITNET(Because It's Time Network)은 컴퓨터와 통신 시설을 연결해서 교육·연구 기관 사이의 국제적인 학술 연구 정보를 교환하는 종합적 학술 정보망이다. 각 대학 및 연구소에 설치된 컴퓨터를 전용 회선으로 연결, 각종 학술 정보와 메시지, 화일 등을 교환하는 비영리 통신망인 BITNET는 1981년 미국의 예일大와 뉴욕市立大學간에 개통된 이래 30여 개국 900여 대학과 연구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서울大의 이번 가입으로 국내 대학간의 적절한 전산망 구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정보망이 대학 도서관 정보 네트웍 구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기능의 일부에 지나지 않음도 인식하여야 하겠다.

3. 大學 圖書館 協同體制의 發展 方向

빈약한 장서량, 그 대학 연간 경상비의 2%에도 못미치는 허약한 예산, 기능에 걸맞지 않는 건물에다 그나마 부족한 공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들로 구성된 인사 조직의 낙후성 등 열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부정적 시각에서 우리는 망연히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러한 모든 후진적 요소 내지는

등한시되는 상황하에서라도 대학 도서관은 그 이용자들인 교수와 학생에게 최소한의 정보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러한 이용 가능한 정보 자원의 제약을 각 대학 도서관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를 극복할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인 대학 도서관 협동의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절대적 명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결론은 이미 이렇게 분명하다. 도서관의 장서 구성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duplication)을 배제하고 각 대학 도서관의 소장 자료는 최대한 이용하며, 궁극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협동은 모든 도서관계가 달성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면 법적 뒷받침까지 받고 있는 도서관 협동, 특히 대학 도서관의 협동 체제 내지는 대학 도서관의 네트웍은 어떻게 설계하여 반전시킬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상적으로 말한다면 전국의 주요 도서관이나 모든 도서관이 국가 도서관인 국립 중앙 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여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각 도서관 안에 효율적 커뮤니케이션 자료 전송 수단이 마련되고, 각 도서관에 상호 자료 대출의 의무와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지고, 그 활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러울 것이다(최성진, 1984, p.12). 따라서 국내 모든 도서관들이 협동 체제 속에 들어와서 전국 어디에서든지 연구하는 연구자, 과학 기술자, 학생, 시민 등 모든 이용자들이 그들의 지역적인 제한 없이 국내의 모든 정보 자원을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상적 도서관 협동 체제는 정보 자료의 이용에 대한 민주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최성진, 1984, p.12). 이러한 이상을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개정된 도서관법에서는 명문화하여 도서관 정보 협력망을 규정하고 있다(도서관법 제7장 제41조~제45조).

곧 각의를 통과하게 될 동법 시행령 개정령 안에서도 도서관 협력망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립 중앙 도서관에 두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도서관 정보 협력망의 제도적·기술적 발전을 위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고, 협력망의 운영 계획 및 그 실적을 평가하며 도서관 전산 정보망 체제 구성과 유지, 각종 도서관의 분담 수서 계획의 조정, 기타 협력망 기능의 조정 총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전국의 도서관 정보 협력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도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① 우리나라의 각계각층 이용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 요구의 전반적 조사
② 현재와 미래의 정보 요구, 이용 가능한 정보 자원, 기존 시스템의 문제 영역의 정의 및 서비스 우선 순위의 결정
③ 그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재정 계획의 수립
④ 인적 자원을 조사하여 미래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한 교육 계획의 수립
⑤ 정보 처리 기술 및 서비스 방법을 표준화(standardization)하고 조정하는 일(최성진, 1976, pp.126~127)

그러나 이러한 전국 도서관 정보망의 구축은 시험 계획에의 한 실험과 조정을 위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관종별의 격차와 지역간의 문제, 같은 관종이라 할지라도 정보 자료의 소장 수준에 따른 이해 관계 등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가동을 위하여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연구 검토하고 조정할 시간 또한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국 도서관 정보 협력망에 의한 도서관 협동 체제를 바탕으로 대학 도서관의 협동 체제를 설계한다면 국립 중앙 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여 전국의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 자료원을 갖고 있는 국·공·사립대학을 1차적으로는 지역 대표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연결하고, 이를 중앙관과 연결하는 소위 계층형 네트웍(hierarchical network)을 시작으로 출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한다.

도서관의 성격상 연구·개발 도서관(Research & Development Library)도 지역내에 있을 때에는 이를 대학 도서관과 연결하여 협동 체제를 이루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의 기술 정보실은 주로 모

체 기관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아주 활용한 주제 도서관 내지는 정보 센터를 각각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도서관의 다양한 주제와 대조를 이루는 강점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다. 대학 도서관은 연구소에서 갖지 못하는 관련 주제의 다양한 정보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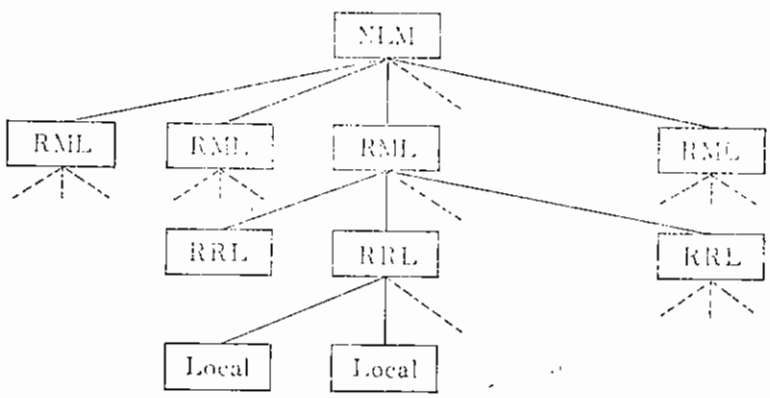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도서관간의 계층이 너무나 현격한 상황이므로 계층형으로 도서관 네트워을 구성하고 상위 계층에 속하는 도서관들은 보다 많은 책임과 보다 많은 정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들로 구성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계했을 때 횡적으로는 도서관의 구조상으로 유사한 도서관끼리, 또는 업무의 양상이 비슷한 도서관들이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며, 종으로는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정보 자원의 규모나 내용이 보다 포괄적이 되어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확률이 점차 높아지게 될 것이다(李斗榮, 1987, p.41).

또한 이 모형은 계층형 도서관 네트워크의 규모를 수시로 확장시킬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는 점이 장점이다. 즉 기존 네트워크 안에 새로운 계층을 추가할 수도 있고 독립된 다른 네트워크을 삽입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모형을 채택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제한점으로는 네트워크의 규모를 무제한 확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최상위 계층에 속하는 몇몇 대규모 도서관들이 네트워크 전체를 통괄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이르면 경영상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多重分割의 구조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존 네트워크의 일부와 평행되도록 추가하여야 할 그룹을 병합하고 그룹 안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전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특히 전국적인 도서관 네트워크을 형성할 경우에 이와 같은 다중 분할 방법이 요청되게 될 것이다(李斗榮, 1987, p.42). 계층형의 대표적인 예로서 미국의 지방 의학 도서관 프로그램(regional medical library program)을 들 수 있는데 그 구조는 아래 〈표 1〉과 같다.

이 프로그램은 문헌 배달이 주된 활동으로 전체 네트워크은 4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하위 계층에는 지방 병원의 도서관, 보건학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전문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고, RRL 계층에는 의과대학 도서관으로, 그리고 RML 계층에는 지역을 총괄하는 11개의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다. 최상위 계층에는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있어 하위 계층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정보 요구를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Rouse and Rouse, 1980, pp.23~24), 이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해주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협동 체제를 설계할 차례가 되었다. 이 도서관 네트워크을 구상하고 설계함에 있어서 사실은 대학 도서관의 어떠한 기능,

〈표 1〉 NLM의 계층형 도서관 네트워크



즉 업무를 중점적으로 협동할 것인가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고려되어야 할 점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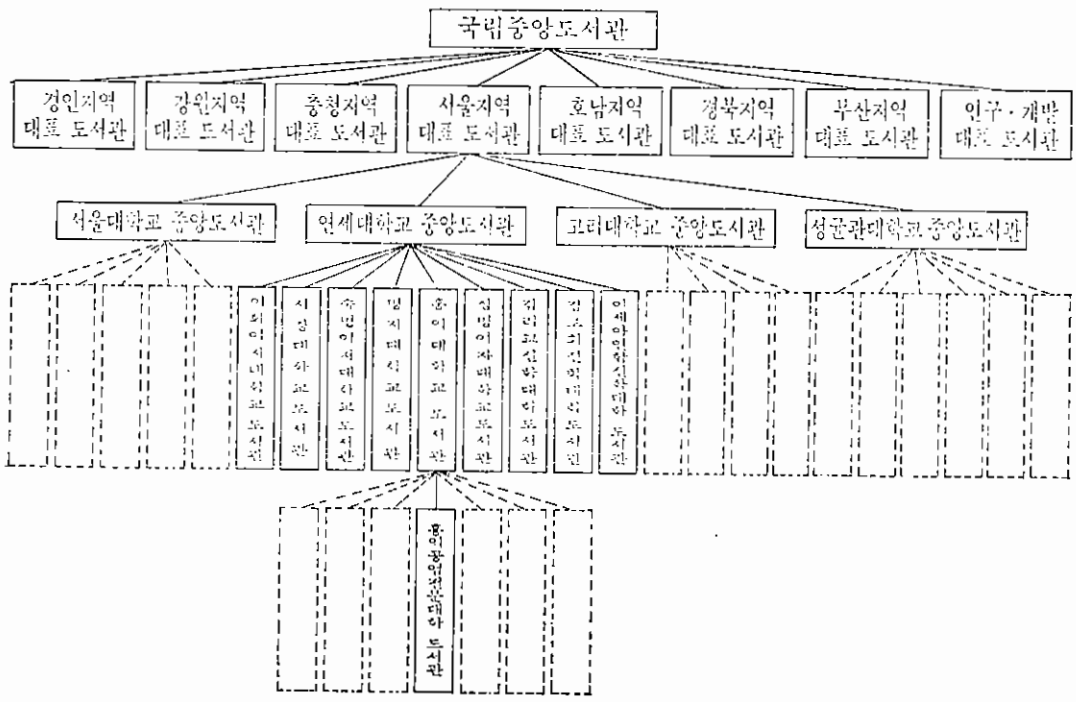
영국의 런던에서 28개 공공 도서관들이 55개 수서 분야의 주제를 나누어 한 주제 또는 두 주제 이상씩 분담하고, 분담한 각 분야의 자료 수집에 연간 2백 파운드 이상 추가 지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천한 이상적인 공동 수서의 협력을 시작으로 미국, 독일, 스칸디나비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공동 수서에서의 협동 분야, OCLC, RLIN, 그리고 WLN 등 미국의 대규모 편목을 위한 협동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편목 분야의 우선 순위는 어떻게 고려하여야 할 것인가?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호 대차 분야의 협동, 그리고 정보 서비스 분야를 위한 고려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 자료의 수준과 지역의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도서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 도서관을 최상위 중앙관으로 하고, 각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지역 대표관을 지정해 보았다.

① 서울 지역 대표관으로는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 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 도서관 등
② 경인 지역 대표관으로는 인하대학교 중앙 도서관과 아주대학교 중앙 도서관 등
③ 강원 지역 대표관은 강원대학교 도서관
④ 충청 지역 대표관은 충남대학교 도서관, 충북대학교 도서관 및 한국과학기술원 등
⑤ 호남 지역 대표관은 전남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도서관 등
⑥ 경북 지역 대표관은 경북대학교 도서관, 영남대학교 중앙 도서관 및 계명대학교 중앙 도서관 등
⑦ 부산 지역 대표관은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동아대학교 중앙 도서관 등
⑧ 연구·개발 대표 도서관은 한국과학기술원 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정보자료실, 산업연구원 기술정보실, 정신문화연구원 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국, 한국표준연구소 기술정보실, 한국동력자원연구소 기술정보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토개발연구원 자료실, 한국에너지연구소 기술정보실 등

위와 같은 상위 계층 아래에 그 주변 지역에

〈표 2〉 계층형에 의한 한국 대학 도서관 네트웍 계획(부분)



속한 다른 대학 및 전문 대학이 각각 하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을 이루도록 도서관 네트워크를 계층형으로 구성한다. 이를 한 부분만 제시하여 예시하면 앞의 〈표 2〉와 같다.

이렇게 설계된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협동 체제는 우선 착수할 수 있는 손쉬운 문제부터 연차적이며 순차적으로 정보 네트워크(information network)을 완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도서관간의 자료 상호 대차(inter-library loan)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별 공동 수서의 문제, 공동 편목, 직원의 교육,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정보 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국내적 협동 체제에서 결국은 외국과의 국외 협동 체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4. 맺는 말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의 협동 체제 구축의 필요성과 그 미미한 실태, 이를 극복할 법적 배경을 바탕한 발전 방향을 나름대로 정리하였다.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대학인들이 국내·외의 모든 정보 자원에 연계(link)되어 어떠한 특정 정보나 자료라 할지라도 복사하여 받을 수 있고, 대출받을 수도 있으며, 참고할 수 있는 이용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 정보 자원의 공동 이용과 효과적 이용이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나라의 대학 도서관들은 지역별·주제별 협동 체제를 완성한 후, 국가의 중앙관은 세계의 정보 자원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인들의 연구와 학습, 그리고 삶을 살찌우는 높은 수준의 예술적 자료들과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은 한정되고 낙후된 정보 자원이 부족한 현실과 늘어나는 출판물의 양에 비해 충분히 책정되지 않는 예산의 제한 속에서 중복 구입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정보 자원의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대학 도서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의 공통적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협동 체제를 서둘러 구축할 시점에 서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李斗榮, 圖書館네트워크構造論, 서울 : 구미무역(주) 출판부, 1987, (현대정보관리학총서 3).

최성진, "도서관 협동 체제", 圖協月報 제25권 제6호(1984), pp. 9~20.

_____, "한국 과학 기술 정보 유통 시스템의 모형 연구", 성균관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계) 제23집(1976), pp. 125~155.

崔云賢·崔昌燮, 圖書館 體制確立 및 運營活性化 方案 硏究, 서울 : 韓國敎育開發院, 1987, (硏究報告 PR 87-3).

Becker, Joseph. "Network Functions: Reactions" in *The Structure and Governance Library Network* ed. by Allen Kent and Thomas J. Galvin, New York: Marcel Dekker, 1979.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United States, *Toward a National Progra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Goals for Actions*, Washington, D.C.: The Commission, 1975.

Rouse, William B. and Rouse, Sandra H. *Management of Library Networks: Policy Analysis, Implementation, and Control*, New York: John Wiley, 1980.

Williams, James G. and Flynn, Roger, "Network Topology: Functions of Existing Networks" in *The Structure and Governance of Library Networks* ed. by Allen Kent and Thomas J. Galvin, New York: Marcel Dekker, 1979.